



감염병 방역 대응 시스템 구축
독립된 공간에서 검사부터 치료연계까지 원스톱 진료

강화군, '감염병대응센터'오는 7월 준공

군은 22일 유천호 군수, 박승한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대응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감염병대응센터는 강화군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강화읍 남산리 325-1번지 일원 부지 703㎡에 39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599㎡ 규모로 오는 7월까지 건설된다.

감염병대응센터가 준공되면 신종 및 1급 감염병 역학조사와 조치, 입국자 추적조사, 감염환자의 자가격리, 백신접종 등의 완벽한 대응체계에 신종 감염병 출현에 신속하게 대처해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시설로 1층에는 외부 출입동선이 구분된 독립된 공간에서 감염병 검사부터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음압설비가 구비된 진료실, 검체실, X-ray 실, 환자대기실 등이 들어서며, 2층에는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총괄 사무공간이 조성된다.

군 관계자는 “감염병대응센터는 독립된 건물에서 검사부터 치료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강화군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해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감염병 대응센터 기공식



중첩규제 극복 총력! 접도구역 53.9km, 471,409㎡ 해제! 강화군, 규제개혁!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관리청인 지방도 중 해안순환도로(광역시도64호선 강화읍 대산리~ 내가면 황청리 구간) 접도구역 총 연장 53.9km를 해제·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파손 방지, 미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도로경계선 양쪽에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으로 지정시 토지 주는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행위가 제한되고, 개발 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군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토지 주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접도구역 해제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3,475필지, 면적 471,409㎡가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효율적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에 강화도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6개 지역, 1816만㎡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2020년에는 농림지역 25만평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인해 도로 주변의 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문화·여가도 한 곳에서 ‘강화군행복센터’ 개관 모두 함께 보고, 먹고, 즐기고 배우는 복합문화공간 탄생



강화군행복센터 준공식

군은 17일 유천호 군수, 박남춘 인천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축하했다.

주민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화군 행복센터’는 강화읍 남산리 213-2번지에 2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8,968㎡,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한 군 최대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2층에는 54면의 주차장 ▲1층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카페 및 푸드스토어 ▲2층은 관내 영·유아 및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키즈카페 ▲3층은 도시재생센터 및 어르신 여가시설 ▲4,5층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실 ▲6층은 다목적홀과 장병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또한, 별도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인근에 공영주차장 67면을 추가로 조성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했다.

이번 행복센터 개관으로 수도권과의 문화시설 불균형이 해소되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공간과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최대 규모의 어린이 실내놀이시설과 부모를 위한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프로그램 연계로 다함께 돌봄 보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행복센터 개관으로 주민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와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강화군, ‘민족의 영산’ 마니산 한겨레 얼 체험관 준공 한반도의 개국정신, 평화인류애와 함께한 강화의 역사 조명



한겨레얼 체험관 준공식

군은 16일 유천호 군수, 박승한 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겨레 얼 체험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겨레 얼 체험관’은 마니산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강화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단군, 고조선, 마니산 등의 역사, 문화, 전통을 널리 알리는 전시·체험시설이다.

주요 전시내용은 ▲개천대제 및 단군신화 ▲참성단·삼랑성·마니산의 단군 유적 ▲강화도의 역사 및 전설 ▲전국체전 성화봉 전시 등 한반도 개국의 역사와 함께한 강화도의 의미를 조명했다.

마니산을 오르는 초입부에는 단군의 역사적·시대별 의미를 담은 ▲단군 이야기길 ▲단군 놀이터 ▲치유의 숲길 ▲신단수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고, 등산로를 따라 아름다운 서해바다의 풍경을 한눈에 만끽할 수 있다. 한반도의 개국정신, 평화, 인류애의 메시지가 공존하는 한겨레의 얼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실상부 국민 관광지이다.

한편, 마니산은 단군이 제천할 정도의 명산으로 용이 승천하고 용마가 나왔으며, 신선이 사는 곳으로 72대 왕후장상이 나올 곳이라 한다. 마니산 정상에 있는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린 제단으로 국가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던 만큼 제전(祭田)이 지급되었고, 고려 원종은 참성단의 의례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지금은 해마다 개천절에 남북평화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개천대제가 거행되며, 전국체전의 성화도 이곳에서 채화한다.

군 관계자는 “한겨레 얼 체험관을 통해 한반도 역사의 중심인 강화도의 의미를 조명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친화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Photo NEWS

현장행정



양사면 공영주차장 준공



관청근린공원 준공식



화개정원 현장확인



강화 기도교 역사전시관 개관식

강화군장학관, 코로나19 꼼짝마... 철저한 방역소독 눈길

학생·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업여건 조성

강화군장학관이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안전한 학업여건을 만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화군은 전문방역업체를 고용해 1일 2회, 장학관 실내·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동이용시설인 스테디룸, 체력단련실, 복도 등을 중점적으로 방역하고, 하루 2회 발열체크와 의심증상 발현시 강화군보건소와 연계한 즉각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화군 제1장학관은 지난 2014년 서울시 영등포구에 72실 규모로 개관했으며, 2019년에는 서울시 중구에 58실 규모의 제2장학관을 개관했다. 관내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90% 이상을 수용해 학생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관 사용료 월 13만 원을 6만 5천원으로 50% 감면하고, 올해부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부터 학생과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학관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



자치교육과 장학관 내부 소독

강화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활력 사업발굴 총력

강화군 인구활력 추진단,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사활



인구활력 추진단

군은 지난 11일 ‘강화군 인구활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 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올해부터 연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활력증진 재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은 5월 말까지이며 행안부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8월에 기금이 확정·배분된다.

‘강화군 인구활력 추진단’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부서별 협업체제를 구축했으며, 지역여건과 주민 수요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경제 ▲출산·보육 ▲교육 ▲주거·정주여건 개선 ▲특수상황 지역개발 ▲도서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인구활력 증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전문가, 주민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계획단계에서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기금 확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실효성 있는 인구 활력 투자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역 맞춤형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강화군,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남북 1.8평화센터’ 준공

북녘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평화안보 관광명소



1.8 평화센터 준공

군은 25일 유천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활성화 핵심사업인 DMZ 평화의 길, 남북 1.8 평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북 1.8 평화센터’는 강화평화전망대 부지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연면적 720㎡) 규모로 건설됐다. 1층에는 강화도의 생태·문화·역사를 공감할 수 있는 복합 전시공간이 2층에는 북한음식 전문 식당이 마련됐으며, 옥상에는 한강 하구 너머 북한을 육안으로 조망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다. 또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의 거점시설로 남북평화 공존의 의미를 전달하고,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으로 접경 지역 군민들과 연계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관광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접경권 평화관광 사업’으로 ▲DMZ 평화의 길 ▲늘(NLL) 평화의 철책 길 ▲산이포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구)강화교에서 시작해 강화전쟁박물관, 참전유공자 기념공원, 연미정, 고려천도공원, 철책길, 평화전망대, 남북 1.8 평화센터에 이르는 강화도 북단 16km 구간을 도보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남북 1·8 평화센터 준공을 계기로 북부지역을 대표적인 평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올해도 자전거 사고 걱정마세요”

자전거 보험 갱신,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민 누구나 혜택

강화군이 전 군민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갱신해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도 3월 13일까지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000만 원 △3%~100%의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 원 등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처리지원금은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과 강화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접수 ▶ DB손해보험 ☎ 02-475-8115

신청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문의 ▶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 032) 930-3494

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강화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247,98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산정·검증을 완료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군 담당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 930-3054



가입대상 모든 강화 군민 (가입 완료)

보장기간 2023. 3. 13. 까지

청구문의 DB손해보험 02) 475-8115

보장내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사고	강화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후유장애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 발생시	최대 2,0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참고

강화군,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록금 첫째, 둘째 자녀까지 확대 지원

다음달 4일까지 신청, 최대 200만 원 지원

군은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 대학생 등록금을 첫째, 둘째 자녀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군은 정부 미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및 첫째, 둘째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해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출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을 부담한다.

지원액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질 납부액 중 첫째 자녀 50%, 둘째 자녀 70%, 셋째 이상 자녀는 100% 지원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2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학생·학부모 모두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등이다. 

- 최백하 기자

지원신청의 ▶ 4월 4일까지 강화군 자치교육과에 방문 전자우편(ghedu@korea.kr)으로 접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참조

18일까지 접수, 농작업 대행으로 인력부족 해결 “힘든 밭 농작업 ‘강화군’이 대신해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_농작업 대행

문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032) 930-4174~8
강화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

강화군이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밭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한다.

밭 농작업 대행사업은 트랙터, 관리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해 정지, 휴립, 피복 중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업 수수료는 정지 작업 3.3㎡당 150원, 휴립 3.3㎡당 100원, 피복 3.3㎡당 250원으로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낮게 책정했다. 다만, 피복작업의 비닐은 개별구입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본점과 분점(교동, 남부, 북부, 삼산)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관내 농지원부 등록 만 70세(1952년 생) 이상 농업인, 귀농 귀촌인(5년 미만), 독거부녀로 밭의 경작 규모 330㎡(100평) 이상 1,650㎡(500평) 이하인 농지원부 농지에 대해 지원한다. 단, 서도면 일원과 서검도, 미법도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나들길 걸으며 환경정화 앞장 강화군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 행사 개최



강화군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강화군 주민자치협의회(협의회장 고철순)는 18일 강화읍 공설운동장에서 ‘2022년 강화군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철순 협의회장, 배준영 국회의원, 및 읍·면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주민자치협의회는 나들길을 걸으며 환경정화를 하는 것으로 체육행사를 대신했다.

고철순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번 한마음대회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강화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벽하 기자

남산 등반하며 환경정화 앞장 강화군 이장단, 코로나 극복! 체육행사 개최



강화군 이장단 체육대회

강화군 이장단(회장 이현호)은 23일 강화읍 공설운동장에서 ‘2022년도 강화군 이장단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행사에는 유천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장단은 남산을 등반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체육행사를 대신했다.

강화군 이장단은 마을 대표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주민간 화합 단결 및 이해 조정 ▲복지사각지대 발굴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등 마을의 일꾼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활동과 홍보에 앞장서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다.

이현호 회장은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에 힘써주시는 이장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벽하 기자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용차량을 표식할 수 있는 스티커 지원 인천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차량 배려 스티커 배부

무궁화 모티브의 다섯 꽃잎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함께하는 시민을 의미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상호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유도 목적

인천광역시는 교통약자 이용편의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차량 배려 스티커」총 5,200매(2,600명 분)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티커의 디자인은 무궁화를 모티브로해 다섯 개의 꽃잎으로 구성됐으며, 꽃잎 각각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함께하는 시민을 의미하며, 스티커의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의 교통약자 명의로 등록차량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 사이의 긍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스티커 수량을 늘려 관내 장애인·노인·영유아 대상 복지시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장애인 차량은 별도의 표식이 있어 인식이 쉬운 편이지만, 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의 교통약자 이용 차량은 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임 장애인복지과장의 아이디어로,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게 됐으며, 올해는 시 소유 지식재산권(디자인) 특허 출원까지 진행 중이다.

단순히 장애인만을 규정짓는 디자인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자인으로 스티커를 제작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스티커는 주행 중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반사 재질로 제작되며, 사용자는 스티커를 차량 전방 왼쪽 보닛 위와 차량 후방 뒷유리 오른쪽 상단에 각각 1매씩 부착하면 된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해당 스티커 부착 차량을 보신 시민분들께서는 차선 변경이나 주차 상황에 기다려주는 등의 배려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만의 특화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권주형 기자



인천시, 원적산공원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업 시행 원적산공원 숲체험으로 자연친화적 감수성 길러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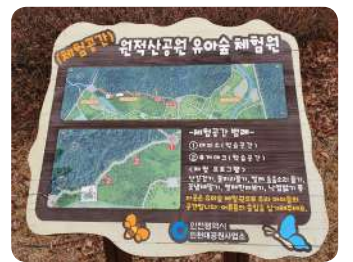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원적산공원사업소에서 유아들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친화적 정서를 기르고 전인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3월 21일부터 11월까지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원적산공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적산공원 유아숲교육은 올해 공원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위탁 사업으로 인근 영유아 교육기관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원적산공원 유아숲교육은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해 유아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장애아, 시니어, 가족 등 다양한 연령대에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동영상 및 실시간 숲체험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아숲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의 만 2~5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체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가족숲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 권주형 기자



참여신청 ▶ 자라나다 숲연구소 카페
<https://cafe.naver.com/jaramforest>

Photo NEWS 내고향을 훈훈하게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양사면_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동면_바르게살기위원회 환경정화



불은면_새마을지도자 영농페스티벌 수거



선원면_주민자치위원회 영농페스티벌 수거

인천 선재도에 해안길 조성한다…2023년 말 준공

해안데크길, 전망대 등 설치 …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인천광역시 선재도 어촌정주어항인 넛출선착장부터 유희 해변을 따라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드무리해변까지 해안길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14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장 990m 중 해안데크길 760m, 백사장길 230m와 전망대 1개소가 설치되며, 사업비는 약 35억 원으로 올해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말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선재도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캠핑장, 펜션 등 관광휴양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재도에 해안길이 조성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함을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2022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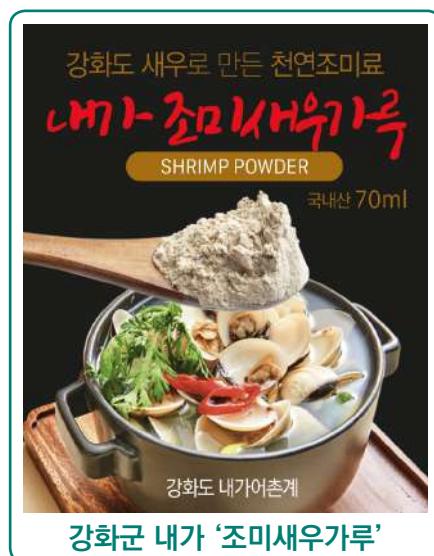
직거래 마케팅·여성어업인 육성·마을공동체 설립·특화상품 개발 등 11개 분야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어촌마을 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인천어촌특화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올해는 ‘어촌마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3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법」에 따라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했다. 올해 활성화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어촌마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어촌마을 홈페이지·SNS를 활용한 직거래 마케팅 ▲여성어업인 육성 및 마을공동체 설립 ▲어촌 체험 휴양마을 및 어촌계 홈페이지 활동 교육 컨설팅 ▲특화상품(밀키트) 개발 등 11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59개 어촌마을의 6차 산업* 융·복합을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같은해 6월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 어촌 6차 산업 : 수산업 및 어촌과 관련된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1차) 수산물의 가공(2차) 유통·판매·서비스(3차) 등을 연계 제공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어촌특화상품 개발지원



인천어촌특화센터는 설립이후 인천 어촌마을에 대한 특화발전 표준모델을 마련해 역량강화 교육 시 어촌마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직접 찾아가는 현장 어촌 멘토링을 통해 마을단위에서 자체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어조합법인·협동조합·마을기업 등 4개소 설립을 지원했다.

또한 어업 외 소득원 발굴을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및 수산물 소비촉진 판매행사, 지역 박람회 참가를 통한 판매 수산물 우수성을 알려 인천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지역특산물 : 강화군 내가 ‘조미새우가루’, 중구 마시안 ‘해조수당젤’, 강후 ‘새우해산물 소스’, 용진군 장봉 ‘김·감태세트’, 대이작 ‘우뭇가사리&굴소스’, 송봉도 ‘다시마차’, 영암 ‘화장품선물세트’ 등

이를 통해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특화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전국 10개 센터 중 2019년 상(3위), 2020년 최우수(2위), 2021년 대상(1위)을 수상하는 등 전국 어촌특화지원센터 최고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 권주형 기자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 개최

정하영 시장 “대기업 진출로 도시가치 향상… 김포의 새로운 랜드마크 될 것”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19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시의회의장, 김주영 국회의원, 심민자 도의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순향을 축하했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일원 87만4,343㎡ 부지에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되며,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 개통에 따른 풍무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어 2016년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업자 공모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대우, 호반, 태영건설 등)이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2017년 5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각각 50.1%, 49.9%의 지분 비율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풍무역세권개발을 설립하고 인·허가 및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풍무역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역세권에 중심특화기능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지 내에는 6,937세대의 주거공간과 역 주변 5,500㎡ 규모의 광장 및 13,000㎡의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또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는 물론 대학과 대학병원 등의 교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사우동, 풍무동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전망이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앞서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인가가 승인·고시됐으며 올해 2월 인하대, 인하대병원과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환영사에서 “인하대, 대한항공, 한진그룹 등 대기업 진출과 더불어 김포의 도시가치가 대폭 향상되고 있다”면서 “특히 풍무역 주변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교육, 문화, 주거기능이 복합된 김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1]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



「찾아가는 도서관 : 손안애冊」 운영

통진도서관, 어르신 안방까지 책배달한다



김포시립 통진도서관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어르신들의 안방까지 도서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손안애冊 (이하 손안애冊)』봉사를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지역어르신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되는 ‘손안애冊’ 프로그램은 통진도서관과 인접한 김포시 북구권 역의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을 통해 가능한데, 도서관은 복지관측에 매월 150권의 권장도서 목록을 제공하며 1인 5권까지 2주간 대출이 가능하다.

도서배달은 매주 1회 목요일에 한하며, 어르신들은 화요일까지 복지관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시립도서관(관장 소영만)은 “‘손안애冊’은 코로나19로 도서관 출입에 부담을 느끼시거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역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손안애冊’을 통해 지역도서관을 가깝게 느끼고,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1]

- 권주형 기자



신청 ▶ 김포시북부노인복지회관 ☎ 070) 7710-1163
문의 ▶ 통진도서관 ☎ 031) 5186-4974
복지관 ☎ 070) 7710-1163

민족 근대화와 독립운동의 횃불 강화기독교 정신 기념 강화군, 강화기독교 역사 기념관 준공

강화군에 민족 근대화와 독립 운동의 횃불이 된 기독교 정신을 기념하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군은 21일 유천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군의회 부의장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 대한성공회 이경호 주교, 성공회대학교 김기석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축하했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은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해 강화읍 용정리 1086-7번지 일원에 연면적 1,877㎡,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됐다.

전시관에는 △교산교회, 니콜라회당으로 시작된 강화 기독교의 전파 과정 △초기 선교사와 강화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를 통한 만인이 평등한 교육·문화·의료체계 구축 △강화 기독교인의 3.1운동과 항일운동 △기독교 가치와 실천의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성재 이동휘(강화중앙교회) △송암 박두성(교동교회), △유봉진(길직교회) 등 기독교 인물들을 통해 기독교의 근대사적 가치와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1893년 당시 선교사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아 선상에서 이승훈의 어머니에게 배편 세례로 유명한 ‘교산교회’,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효수터인 ‘갯곶순교성지’, 현존 최고의 한옥성당으로 조선의 전통문화와 기독교 서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강화읍성공회 성당’과 ‘온수리성

당’, 이름없이 죽어간 무명 순교자들에게 봉헌된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등 강화의 기독교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군 전역을 소개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경호 주교는 축복기도를 통해 “기념관이 지역 사회의 화합과 번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근대사 속에는 강화의 기독교 정신이 함께 숨쉬고 있다”며 “이번 기념관 조성으로 민족 근대화의 횃불이 된 강화 기독교 문화유산을 집대성했으며,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강화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



강화 기독교 역사전시관 개관식

인천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사업 선정 정원같은 공원, 최고의 휴식형 가족공원에서 즐기는 축제

강화군, ‘교동화개정원 축제’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

강화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빼어난 조망을 자랑하는 ‘교동화개정원’이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동화개정원 축제’는 인천시를 대표하는 지역 특화 관광 축제로 육성된다.

‘교동화개정원 축제’는 화개정원 내 명소마다 버스킹 공연 등 소공연이 펼쳐지고, 화개정원 보물뽑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되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평화의 섬 교동도의 관광지와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교동도 화개산 213,251㎡에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하는 민선7기 최대 역점사업이다. 주요 시설로는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5색 테마 화개정원 ▲모노레일(민자)이 들어서며, 온 가족이 정원같은 공원에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조성된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 24일 오후 4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가 한창인 현장을 함께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화개산 정상의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는 강화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비상을 기본 컨셉으로 군조인 저어새의 긴 부리와 눈을 형상화 했다. 전망대를 통해 한강하구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북쪽으로는 연백평야를, 남쪽으로는 석모도, 불음도를 조망할 수 있다.

5색 테마 화개정원은 분수가 포함된 물의 정원 공사와 군민이 기증한 수목으로 정원 같은 공원, 휴식형 가족공원으로 조성된다. 모노레일을 통해 정원입구에서 전망대까지 2km를 궤도 열차로 이동하며, 빼어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1,500만 관광객과 지역 소상공인, 농·어업이 상생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선순환의 관광생태계를 최선을 다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화개정원 현장확인

기고

꽃길



고 수 진
강화향교 장의

어류정도 등대
장구너머 풍어의 그물질
정신없이 어두워지면 밤바다
길을 열어주는 불빛

갯방죽 普門疊濤보문첩도
민들레 바람막이 먼저 피고

어저께(3월 20일)는 春雪춘설이 내렸습니다. 눈하면 문득 생각나는 詩시가 있습니다. ‘강화투데이’ 독자 여러분과 공유코자 소개합니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을 제
不須胡亂行; 불수호난행; 함부로 어지러이 행하지 말라
今日我行跡; 금일야행적; 오늘 나의 발자국이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터이니,

우리(필자 포함)는 흔히 이 漢詩한시가 西山大師서산대사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조 후기의 선비 李亮淵(이양연, 1771-1853)의 『臨淵堂集(임연당집)』 출처하고 있답니다. 필자는 겨울에 가장 먼저 즐기는 것이 눈 밟기였습니다. 일기예보나 아침에 창문을 살짝 열어보는 눈이 왔으면 황급히 아침을 재촉해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리산이나 혈구산, 석모도의 해명산 낙가산으로 치달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눈을 밟기 전에 먼저 밟는 것이 쾌감이었습니다. 설령 넘어지고 미끄러져 나뭇굴지라도 기분은 더욱더 상쾌했습니다. 특히나 봄눈은 더 애뜻했습니다. 내리면서 녹거나 아침 봄 햇살에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은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말라. 나의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단순한 행동 하나가 자신의 가족에게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인이 아닌 국가의 흥망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임박했고, 청와대가 아닌 새 집무실 마련으로 연일 떠들썩합니다. 어떠한 발자국을 내디딜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못 기대됩니다만 잘못 가며는 국민 모두가 채찍을 들고 질책을 해야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강화 문협이 김 작가와 윤 사무국장이 來訪내방했습니다. 매년 두세 번 정도는 안부를 묻고 찾아주시는 데 송구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올해는 필자의 작품집(假題가제; 조강에 부는 바람)을 인천시 문화재단에 창작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다행히 창작 지원금 수혜자로 선정이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쁘다기보단 덜컥 겁이 났습니다. 비로소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등이 떠밀렸구나!! 아불사(我不死). 겨우내 연모하던 봄 바다 석모도 장구너머 포구가 아른거렸습니다. 셋은 의견 일치하고 석모도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봄나들이가 되는 셈입니다. 이젠 다리가 놓여 졌으니 언제든 어느 시각이든 쉽게 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맛으로 따지자면 싱겁기가 한량없습니다. 외포리

포구에서 매캐한 渡船도선의 연기 냄새와 비릿한 갯내음도 섬으로 가는 여행의 참맛이고,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던져주는 기쁨이 우리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화작용이었습니다. 승객 모두가 환호하며 기죽었던 기를 펴는 데는 최고 이벤트였습니다. 별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섬 역시도 섬의 자연의 質朴질박함이 사라진, 온갖 획일적인 회백 빛에 난데없는 페인트칠이 역겹기도 했습니다. 잘사는 거라고 하기엔 ‘過猶不及과유불급’입니다.

우선은 민 머루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바닷물은 멀찌감치 나가 있었습니다. 갯벌 끝으로 아득한 쌀쌀한 바람이 遊戲유희하고 있습니다. 제철이 아닌 탓에 썰렁하고 보잘 것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 먹을거리라도 찾았으면 좋으련만 따끈한 커피조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옷자락을 여며 어류정포구로 갔습니다. 포구 역시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여기저기 건물을 세워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봄의 온기라곤 도저히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른 탓일 게다’ 위로합니다. 어류정 포구는 근래에 어민의 위한 관광시설 확충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일궈왔습니다. 어민들이 어선을 띄우고 어획물이 풍어를 이뤄야만 흥청거릴 겁니다. ‘기다려야 한다.’고 재차 자위합니다.

예전엔 석모도 ‘바람의 길’을 갯방죽을 타고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봄에는 납작 엎드린 제비꽃, 민들레가 발밑에서 아양을 떨었고, 가을에는 갈대꽃이 우거져, 걷기에는 최적의 코스였습니다. 포구에 이르면 서둘러 가방을 내팽개치고는 막걸리에 뽕이회 병어회 송어회 꽃게찜으로 한 상 노매드(nomad)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로 하여금 차가운 갯바람이 다소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멀리 등대가 보입니다. 어민들의 안전시설이 우선이겠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한 수산물 판로가 급선무일 겁니다. 허기가 닥쳐옵니다. 이 나들길 코스는 민머루 해수욕장을 지나 장구너머 포구로 그리고 갯방죽을 걸어서 보문사에 이르는 길입니다. 운이 좋으면 ‘普門疊濤보문첩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문첩도’는 김노진 강화유수(1782년)가 정한 ‘江都十景강도십경’ 중의 하나입니다. 즉 보문사 앞 갯방죽의 疊疊첩첩이 밀려들어오는 파도라는 뜻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치 못할 겁니다. 오로지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막이 옷에 후드를 뒤집어쓰고, 奮蕩분탕의 흙탕물은 동해의 푸른 파도보다는 클래스가 다른 장관입니다.

普門疊濤보문첩도 夕陽茫然석양망연
보문의 물결 첩첩한데 석양빛 망연타라

凌波越嶋능파월구 怪異聲청괴이성청
파도를 넘는 갈매기 괴성이 귓가에 따갑더니

골프치는 사람들이 보이고 멀리 고래 등이 보입니다.
桑田碧海상전벽해, 食後景식후경입니다. 📷

기고

正論
直筆

한 줄에는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

신 봉 기
강화투데이 발행인

현대생활을 살아가면서 언론은 좋은 사회와 건전한 민주사회의 건설을 지향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불가결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있다는 믿음과 팩트만을 전달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은 독자에 대한 최소한이자 가장 기본적인 예의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임에도 종종 진실을 비틀어

왜곡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사회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하나된 지역사회를 이루고 당면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강화에서 조차 일어나고 있다. 언론사간에 쟁점 하나를 가지고 서로 탁구를 치듯하니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전혀 답이 없이 지속적으로 물고 혈뜰는 일이 반복될 것이고, 급기야 독자들의 외면과 함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어 활동하는 깨끗한 지역 언론들마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그 나비효과로 강화의 지역발전의 후퇴에 일조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일례로, 지난 3월 10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도 수많은 언론들이 거짓뉴스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SNS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퍼나르고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을 지면에 실는 일들이 빈번하여 많은 국민들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일들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는 언론인,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코 앞의 사익(私益)에만 눈이 멀어 쓴 기사를 접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선거처럼 공익을 위한 기사란 이름을 두른 가짜뉴스를 SNS이나 신문지면에 실는다면 그것은 군민들은 실망시킬 것이고 이에 더해 사익을 탐하는 특정 집단으로 인한 군민들의 산발적 피해와 지역발전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 눈에 보이듯 훗날 뿐이다.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는 좋은 언론이 되려면 기자는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기사의 토대로 삼으며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관의 저울과 수도자의 성찰을 곁들여 갖추고 시류에 편승하는 그릇된 사고를 벗어나 스스로 쓰는 기사 한 줄이 독자에게 미칠 파급력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실 위주의 글로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길 수 있는 공익을 위한 공생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기자는 어떠한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편견이나 이해 관계를 갖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은 곧바로 독자에게 전이된다는 것을 자각하자.

기자 스스로 정확한 판단이 서지않음에도 그저 퍼나르는 기사를 쓴다든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게 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기사를 통해 심판대에 올라 온전히 독자에게 비판받고 고통받을 사람이나 단체일 것이고 더해서 왜곡된 기사를 통해 비판했던 독자들마저 상처를 입게되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사를 쓴 기자 자신일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사를 쓴다면 지면을 이용해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기자로서의 자격 미달인 것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된 정보로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인식하지 않은채 거짓 정보의 해명없이 편향된 기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타인에게 억지 시비를 걸고 횡포를 부린다. 마치 거짓 기사와 같은 수준의 대응인 것이다.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문 윤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시정조치]란 내용 한 줄로 치유될 수 있을까? 이미 오염되어 버린 강물에 [자연보호]라는 팻말을 붙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자기가 한 것은 다 옳고, 남이 한 것은 나쁘게 보려는 자기중심적 "我是他非(아시타비)"

이는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신종어로 말의 앞말만 따서 한자로 옮긴 내로남불로 대응하는 신종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편협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비슷한 말로 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내합남불)이라는 단어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다 내탓이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남을 탓하려면 먼저 자신의 정의가 바로 서야만 된다고 생각된다.

진실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뚤어진 방향으로 유도해 여론을 조작하여 주민들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언론과 기자의 횡포는 앞으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생존 자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자 스스로 기자라는 사명감을 짓밟는 일에는 발을 딛지 않아야 할 것이고 독자들의 적극적인 질타속에서 겸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기사 한 줄마다 책임감이 따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자의 입장으로서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항상 깨어 있는 의식을 통해 스스로 정의롭고 불의에 맞서는 군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길만이 우리 사회를 폐해로 이끄는 이러한 유해한 불씨를 썩부터 자르고 건전한 사회상으로 올바르게 발전하는 강화로 이끈다는 틀림없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다용도 작업대’로 허리피고 웃으며 일해요

강화군, 농작업 통증 끝! 다용도 작업대 인기 최고!



농업기술센터_다용도 작업대

군은 농작물의 재배·수확·선별·포장 등 단순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근육통, 관절통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고 있다.

‘다용도 작업대’는 작업대 사용 전과 비교해 근골격계 통증호소율이 75% 개선되는 등 여성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 2년간 148농가에 220대의 작업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대를 보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다용도 작업대를 활용한 농작업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 농정시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 032) 930-4122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

『강화군 농기계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 피 보 험 자 : 강화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사고보장기간 : **2022.03.14.~2023.03.13.**(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료 : 강화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 입 절 차 : 강화군민 전체 가입 완료

보험가입 혜택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	1,500만원한도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	1,270만원한도

※ 농기계의 범위

- 트랙터, 트랙터 보호구조물, 콤바인, 동력이앙기,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저온저장고,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곡물건조기 등

보험금 청구 문의

- 피보험자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최초 진단서 등
- 보험청구 문의 : **DB손해보험** ☎ 02-475-8115
- 담 당 부 서 : 강화군청 안전총괄과(안전기획팀) ☎ 032-930-3494



안·전·스·티·커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설명서

농약만 보관



- 반드시 농약만 보관
- 농약 보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신발, 장갑, 농기구 등
보관 금지

열쇠 사용



- 농약의 안전한 관리 위해 열쇠 사용
- 열쇠는 기억하기 쉬운 곳에 보관

항상 잠겨있도록 하고
필요시 열쇠 사용

실내 보관



- 보관함을 녹이 슬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보관

창고, 비가 들어오지 않는
처마 밑 설치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2)932-4093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